

# 정보시대 문턱에서 서성거린 한 해

## '96 출판계의 빛과 그늘

올 한해 출판계는 여러가지 의미에서 과도기, 구조 조정기로 평가된다.

지난해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불황으로 된서리를 맞은 후 참담한 상황에 있었던 출판계가 오랜 불황을 버텨내는 방안으로 여러가지 변화를 모색한 것이 그 첫번째 징후다. 경영합리화를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출판사가 늘었다. 기발한 전략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하거나 대담한 대형기획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려는 노력들도 두드러졌다.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세계화·정보화에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도 어느해보다 한결 부산했다.

지속되는 불황과 중첩되는 악재 가운데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내일을 준비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출판계의 한해를 돌이켜 본다.

### 전분야 발행종수 감소추세 영상매체시대 맞춘 만화 증가

올 한해 우리 출판계의 사정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무래도 출판물 통계다. 출판협회가 집계한 9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출판물 납본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행된 책은 만화를 제외하고 초판만 20,719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199 종보다 1480종이나 줄어 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눈길을 끄는 현상은 이같은 감소 추세가 전 분야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중 철학이 594종으로 전년대비 22%나 감소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역사(전년 대비 11.7%), 문학(5.5%)의 순을 보여, 개정저작권 발효 이후 학술서 출판이 크게 위축됐음을 짐작케 해준다. 시장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았던 어학이나 아동물도 발행종수가 줄기는 마찬가지. 어학서는 18%나 감소했고 아동물도 11.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러한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만화 출판만은 늘어나 지난해 3614종이었던 것이 4415종으로 4.5%의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는 영상매체 시대의 독자들이 아무래도 활자보다는 만화에 더욱 친밀감을 느끼는 세태를 반영한 것으로, 대본소 만화가 아닌 서점용 만화가 늘어난 것도 한 요인이다.

출판물 발행종수의 감소추세는 지난해에 이은 것으로 출판협회의 이순덕 회장은 이러한 지속적인 감소추세가 "장기적인 불황과 독서인구의 감소 등 전반적으로 상황이 악화된 데다 개정저작권법 발효 등으로 출판사들의 출판활동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 정보화·세계화 요구 적극 수용 출판사 '홈페이지' 개설도 늘어

불황을 힘겹게 버텨내면서도 당면한 정보화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려는 출판계의 움직임은 두드러졌다. 국립중앙도서관이 2월 26일부터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국제표준도서번호(ISBN)에 의한 출판도서정보를 온라인 서비스한 것은 대표적인 예다.

또한 PC와 CDI, LDP, VOD 열람실, CD롬 타이틀 조회실, 인터넷 정보자료실, 멀티미디어 교육장 등을 갖춘 전자도서관도 생겼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일반도서관은 물론 학위논문과 고문서, 멀티미디어 출판물 등 소장 문헌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2000년까지 주요자료 11만종의 본문을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 8월 20일 창립한 (주)한국출판정보통신(대표 강경중)은 가속화하는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발맞추기 위한 출판인들의 의지가 결집된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유관업체와 출판사 및 관련업체 150여사가 주주로 참여, 컨소시엄 형태로 출발했다. 한국출판정보통신은 현재 30만종의 도서정보를 구축, 서지사항과 본문 초록 등을 하이텔의 BNK(Book-Net Korea)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BNK에 자사 출판정보를 제공하는 IP회원은 현재 200여사이고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BNK를 센터로 하는 EDI(전자거래 문서교환)는 현재 99% 개발 완료하여 총검토 중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출판사와 서점은 더 이상 손으로 전표를 써서 주고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출판 DB팀장인 김계원씨는 "BNK에 대한 업계의 반응이 좋다. 창립해 인 올해 자리를 잡는다면 내년부터 각종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한울·영진·삼성 등 몇몇 출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소식도 반갑다. 지난 9월 10일 개설한 영진출판사의 '사이버 북'은 전용 웹서버를 갖춘 유일한 경우로 개설 2개월만에 약 8천명의 네티즌들이 다녀갈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한울출판사와 삼성출판사는 국내 통신회사의 인터넷 계정 서비스를 이용해 홈페이지를 개설한 경우. 적은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어 비용 문제로 홈페이지 개설을 망설이는 많은 출판사에 용기를 주었다.

이밖에도 문학동네가 출판사 공동 서버 구축을 계획하고 있고, 고려원·민음사 등이 내년 개설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홈페이지 개설은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정보화·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의의를 더한다.

### '파주단지' 수도권 공업지역으로 확정 유통구조 혁신 위한 움직임 가시화

출판유통의 현대화·합리화는 출판계가 안고 있는 가장 고질적이면서도 급박한 과제. 올해는 나후된 유통구조의 개혁을 위한 출판계 안팎의 논의가 어느해보다 활발했고, 공동의 노력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연초인 1월 25일 설립한 (주)한국출판유통(대표 윤석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출판사와 서점 386개사의 힘과 뜻이 결집된 출판물 종합 도매 물류 서비스 회사로 자본금 규모가 135억원이 넘는 초대형 회사다. 5월에 (주)서울출판유통을 흡수통합한 한국출판유통은 750평에 달하는 유통센터를 구로공단에도 마련해 지난 8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판매·보관·배송·수급·정보·금융 등 출판물 유통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 서비스함으로써 출판사의 유통비용이나 수고로움을 한결 줄이고 원하는 책을 신속·안전·정확하게 공급한다는 것이 한국출판유통의 목표. 물류비 10%절감이 매출이익의 50% 상승과 연결된다는 말이 있고 보면 물류시스템의 합리화에 대한 기대는 크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한국출판유통의 사업방향에 대한 요구도 적지 않다. 11월 4일 출판연구소가 '21세기 출판유통선진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출판포럼은 그 요구들이 터져나온 경우. 포럼 참석자들은

한국출판유통이 명실상부한 유통센터로서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합의와 시설투자가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출판인의 의지를 모아 어렵사리 출범한 한국출판유통이 성급한 기대와 조바심으로 창립 취지를 그르쳐서는 안된다는 것이 출판계의 중론이다. 97년 시장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출판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진지한 논의와 확고한 방향설정이 절실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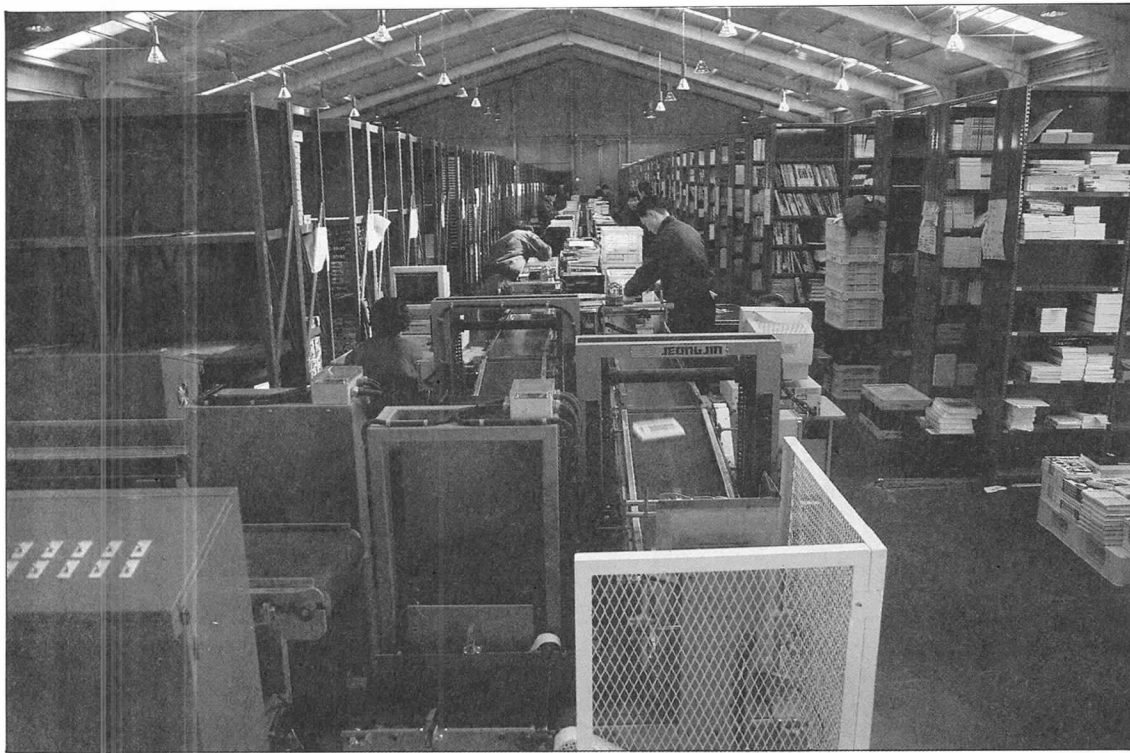
1988년 처음 발의된 후 갖은 우여곡절을 거쳤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가 10월 1일 수도권정비 실무위원회에서 '수도권내 공업지역'으로 확정된 것도 특기할 만한 일이다. 절차상으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고시 절차만 남겨 두고 있는 셈인데, 실무위원회를 통과한 이상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파주단지측은 늦어도 97년 상반기 중에 용지를 분양하고, 늦어도 98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건축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 개정저작권법 발효로 저작권 강화 학술서 출판의 위기의식도 고조

올해 출판계에 몰아닥친 가장 큰 태풍은 다름아닌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저작권법의 핵심은 사후 50년이 안된 작가에 한해서는 무조건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이다. 종래보다 한결 범위가 늘어나고 그 요건도 강화된 것이어서 출판인들의 주름을 깊게 했다.

저작권이 이미 소멸된 저자들, 가령 프로이트나 헤세·괴테·카프카 등의 전집이 속속 출간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좋은 외국출판물을 선점하기 위해 과당경쟁으로 선인세를 높여 놓은 경우도 적지 않았고, 저작권 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먼저 번역에 착수했다가 출간하지도 못한 채 번역원고를 사장시키고 만 사례도 왕왕 있었다. 외국 출판물이나 시장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번역물 비중이 높은 출판사에 저작권 및 에이전시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전문직종이 생기기도 했다.



통합된 거대 출판유통센터에 대한 기대와 출판정보의 네트워크화 등 출판계는 본격적인 출판 VAN을 이루기 위한 몸짓을 보였다.

저작권의 강화로 인세의 부담이 늘어난 학술서 출판의 위기론도 대두됐다. 출판협회에서는 출판금고의 지원으로 우수 학술도서를 선정, 출판비 일부를 지원하는 '우수 학술도서 지원제도'를 신설, 1차분 40여종을 지원하기도 했다.

### 전국 대형서점 분·지점 개설 활기 사회과학서점·소서점 폐업 잇따라

출판중수의 증가와 독자 서비스 강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서점의 중·대형화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형서점들의 분점 및 지점이 속속 개설된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올 들어서만도 서울문고 분당점, 영풍문고 부천점이 문을 열었고 교보문고 성남점, 신촌문고 공덕점, 영풍문고 평촌점이 이미 영업중이다.

주로 신도시나 위성도시에 들어서고 있는 분·지점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벤트와 진열방식을 개발하지만 모태인 본점의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 서점 나들이가 쉽지 않았던 지역주민들에게 호응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들 분·지점들은 서점의 체인화를 예고한다.

상승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채산성 문제로 문을 닫는 서점들이 속출하는 사태는 아

울해도 여전했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김주팔)의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말부터 올 11월말까지 문을 닫은 서점은 대략 잡아 1천여개. 대부분 10평 내외의 영세한 서점이지만 이 중에는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광주 '나라서적' 같은 서점도 있다. 이들이 문을 닫게 된 직접적인 요인은 임대료 상승. 문을 닫지는 않았지만 신촌에 있던 사회과학서점인 '오늘의 책'의 경우, 건물주가 보증금 3000만원을 3억으로 올려달라고 해 결국 위치를 옮겼다. 현재 옮겨간 건물에서 영업을 하고는 있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려움이 크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오늘의 책'은 조합형태로 서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1구좌 100만원씩의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서점조합연합회 사무국 최일철씨는 "현재 문을 열고 있는 서점은 5200 여개이다. 50평 이상의 중·대형서점이 200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10평 내외의 소형서점이고 보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문닫는 서점은 앞으로도 속출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 출판사 등록취소 조치 등 논란 외길 걸어온 중견 출판사 돌보이

출판권 침해가 한두해 있었던 문제는 아

니지만 올해는 유난히 벽두부터 연말에 이르기까지 출판 및 출판인의 권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이른바 '외설' 출판물 공방.

《에로스 훔쳐보기》(이섭 지음, 심지)는 외설 시비의 단초를 연 책이다. 이 책은 도판의 '음란성'이 문제가 돼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경고조치를 받았다. 출판계보다는 미술평론쪽에서 간윤의 '상식'을 문제삼는 반론이 속출했지만 결국 출판사가 문제가 된 도판 10여점을 빼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열음사의 경우 외설출판물 출판혐의로 출판사 등록취소까지 간 케이스. 번역소설 《아마티스타》 등의 음란성을 문제삼아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제재건의해 출판사 등록취소까지 이르렀다. 이에 대해 열음사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등록취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는 출판사 등록취소 집행정지가 결정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소송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어서 판결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정일씨의 소설 《내게 거짓말을 해봐》(김영사)는 영장이 청구되기 전 출판사가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하고 책을 회수하는 등 발빠른 대응을 했지만 결국 출판사 대표 권한대행인 김영범씨가 구속되고 작가

에게도 영장이 청구된 상태. 이에 대해 김영하·백민석 등 젊은 작가 10여명이 사법제재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에서는 열음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간윤의 무원칙한 심의 기준과 잣대를 문제삼기도 했다.

출판권 침해 문제는 비단 외설 시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지난 10월 경찰이 전국 서점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납본필증을 받아 팔고 있는 합법도서들을 이념서적이라며 압수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요구한 일이 발생해 출판계를 아연케 했다. 이들이 제시한 이적서적 발간 출판사 목록에는 한길사·창작과비평사·현암사 등이 포함돼 있기도 해서 빈축을 샀다.

영화와 음반·비디오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진 상황인데도 출판물에 대한 심의와 작가의 인신구속이 끊이지 않았다. 출판사의 등록마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이다. 언제 작성됐는지도 해묵은 잣대의 이념서적 목록은 아직도 검찰 손에 있고 언제든 서점과 출판계를 후려칠지 모를 일이다. 이런 심각한 출판권의 침해와 도전에 대한 물밑 반론은 적지 않지만 출판계 공동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미래를 향한 출판계의 행보가 더없이 빨라진 한편, 오랫동안 출판 외길을 걸어온 출판사들의 창립기념회가 어느해보다 풍성했던 해이기도 하다. 민음사·범우사·창작과비평사·문예출판사 등이 창립 30주년을 맞았고, 현암사·유유문화사 등은 창립 반세기를 맞이해 기념식을 갖기도 했다. 출판의 어려움이 갈수록 많아지는 때여서인지 출판 외길을 걸어온 중견 출판사들의 노고와 공적이 유난히 돋보이는 해였다.

—박남정 기자